

# 발화(發火)기구

## - 청동수화경(靑銅水火鏡) ②

《주례(周禮)》의 〈추관사구(秋官司寇)〉 하(下)에 보면 ‘사훼씨(司煇氏)는 부수(夫遂)로써 태양에서 불을 취하고 감(鑿)으로써 달에서 정화수를 취하여, 제사에 깨끗한 자성(齋盛, 제기)과 명촉(明燭)을 제공하고 정화수를 제공하는 일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있다.<sup>1)</sup>

사훼씨는 불과 물의 금기사항을 관장하여 불을 점화(點火)하고 정화수를 채취하여 필요한 곳에 보급하는 직책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부수(夫遂)는 양수(陽燧)·양부(陽符)라고도 하며, 곧 화경(火鏡, 오목거울)을 일컫는다. 태양에서 불을 취하고자 오목거울을 이용한 것이다. 오목거울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울의 요면(凹面)을 수은(水銀) 등으로 잘 닦아서 태양에 비추어 빛의 초점을 맞춰 불을 착화(着火)시키는 것이다.

감(鑿) 또한 거울의 요면(凹面)을 이르는데, 달빛을 거울에 반사시켜 이슬을 맺게 하는 것이다. 청동 거울의 표면에 있는 요면(凹面)을 닦아 한 밤중에 밝은 달에 비추어 놓으면 밤이슬이 거울의 요면(凹面)에 모여 월수(月水), 즉 정화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태양과 달, 즉 음과 양의 상징으로서 성화(聖火)와 성수(聖水)를 얻는 청동수화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청동수화경은 대체로 거울의 앞면과 뒷면의 모습이 다른데, 앞면의 경우는 일반적인 동경(銅鏡)처럼 표면이 매끈하게 되어 있고, 뒷면은 불(聖火)과 물(聖水)을 취하기 위해 서로 다른 요철(凹凸)의 구조를 띠고 있다. 부수(夫遂)와 감(鑿)의 형태를 함께 지닌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때에 따라서는 감(鑿)의 요면(凹面)이 없이 부수(夫遂), 즉 오목거울의 형태만 취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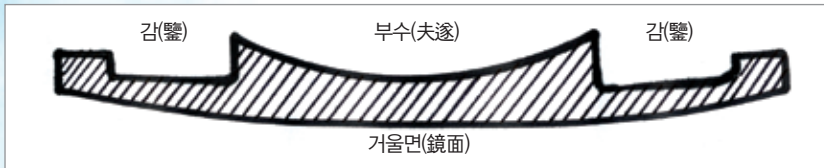
1) 司煇氏 掌以夫遂 取明火於日 以鑿 取明水於月 以共祭祀之明燭 明燭 共明水. 지재희 · 이준녕 해역, 《주례(周禮)》, 자유문고, 445쪽

사진 ① 청동수화경(靑銅水火鏡)/조선시대/길이 23cm/온양민속박물관 소장/온양민속박물관, 〈우리 민속 오백년의 모습〉, 2005, 91쪽  
 ▣ 온양민속박물관에서는 동인승(銅人勝) 자료로 소개하고 있다.

사진 ② 청동수화경(靑銅水火鏡)/고려시대/길이 17.1cm/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청동 종 모양 매다는 거울[靑銅鍾形懸鏡]이라고 이름하고, 동경(銅鏡)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진 ③ 청동수화경(靑銅水火鏡)/고려시대/지름 10cm/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뇌문명경(雷文明鏡)이라고 이름하고, 동경(銅鏡)으로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초화문(草花文), 뇌문(雷文), 운문(雲文), 추상문(抽象文), 동물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양을 새겨 넣어 의기(儀器)로써 길상(吉祥)의 의미를 더하였다(사진 ①, 사진 ②, 사진 ③ 참조). 대표적인 청동수화경의 단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청동수화경 단면도〉


이러한 청동수화경은 앞서 밝힌 것처럼 《주례(周禮)》의 고문헌에서도 확인되듯 주(周)나라와 진(秦)나라, 한(漢)나라 등 고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조선(古朝鮮)과 낙랑시대(樂浪時代)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더욱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청동수화경은 매우 오랜 연원을 지닌 유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려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그 상황이 달라지는데, 의기나 발화기구라기 보다는 궁중에서 의식을 행하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인승(人勝)의 자료로 나타난다.

인승은 정월 초이렛날 인일(人日)에 궁중에서 하사하였던 장식품을 일컫는데, 장수와 복을 비는 뜻에서 임금에 신하들에게 내린 화승(花勝), 즉 꾸미개를 이른다. 이 날 인승을 하사하였으므로 인승절(人勝節)이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모양과 더불어 재료에 따라 금인승(金人勝)·은인승(銀人勝)·동인승(銅人勝) 등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동인승 가운데 동경(銅鏡)의 형태를 띤 것이 바로 청동수화경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 겉모양으로 보서는 이 둘의 차이를 확연히 구별할 수 없으며,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 하나 청동수화경과 동경(銅鏡)과의 구분이다. 대체로 동경 속에 청동수화경을 포함시켜 이해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둘은 기능과 역할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동경이 동판(銅板)의 표면을 잘 다듬고 문질러 얼굴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이라면, 청동수화경은 태양빛과 달빛을 쬐어 불과 물을 취할 수 있게 만든 거울이다.

물론 청동수화경 가운데 일반적인 동경의 기능을 하는 복합적인 경우도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청동수화경 앞면을 매끄럽게 하여 거울로 쓰는 경우가 그러한데, 이 때문에 청동수화경을 동경으로 받아들이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 사진 및 자료

- 지재희·이준영 해역, 《주례(周禮)》, 자유문고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1991
- 은양민속박물관, 《우리 민속 오백년의 모습》, 2005
- 공보실 편, 《한국의 고등기》, 한국전력주식회사, 1968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05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④ 청동 거울(銅鏡)/원삼국시대/(大) 지름 12.7cm/영남 지역 출토/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05, 53쪽  
 사진 ⑤ 인승(人勝)/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2 고을시편 중 〈인일수은승(人日受銀勝)〉에 대한 내용/규장각도서